



과학수사 환경의 미래와 파트너십의 중요성

과학수사의 답은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십

오늘날의 급변하는 치안환경 속에서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일에 과학수사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형사사법제도의 변화와 매체의 영향으로 인한 대중 인식의 변화, 범죄의 지능화 등의 환경 변화 요소들은 과학수사 분야에 있어 미래를 위한 준비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범죄현장에서 언제나 보이지 않게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해온 과학수사요원들은 지금보다 한 단계 수준 높은 전문성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 시대적인 요구를 받고 있다.

고도의 과학 전문지식 요구 증가

이에 부응하듯이 최근 우리 경찰의 과학수사는 인력과 기술의 측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다. 전국으로 흩어져 있는 전문가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들의 소중한 현장경험과 지식을 집약하여 다시 현장으로 보급하는 역할



글 김정식

순천향대학교 부총장
kimiscg@gmail.com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후 행정고시 특채로 경찰에 입문하여 충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정보국장, 경찰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을 하는 전문가 연구그룹이 검시, 지문 및 장문, 혈흔형태분석 등 10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 경찰 수사연수원의 교육은 과학수사 전문화 교육이 본격 도입된 이래 기초과정에서부터 고급기법과정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기법전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요구하는 과학수사의 수준은 어디까지일까?

예를 든다면, DNA기술의 발전으로 현장 증거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생물학적 증거물들이다. 과거 과학수사요원들에게는 이러한 자연과학분야에 기반을 둔 테크닉은 요구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의 과학수사 환경은 현장 실무자들에게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고 있고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조될 것이다. 또한 물리학과 수학에 관한 지식이 요구되는 혈흔형태분석은 현장을 재구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미 다수의 사례에서 그 고도의 과학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렇듯 지금의 과학수사 환경은 현장 실무자들에게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법과학 선진국의 일부 학자들은 ‘현장 실무자들은 과학자라야 한다’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과학자로 대표되는 법과학 감정 실험실과 경찰 과학수사요원으로 대표되는 현장 실무의 경계는 모호해졌고 그들이 가져야 할 지식과 기술의 수준에는 높고 낮음 또는 깊고 얇음의 차이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사실, 실험실에서는 자신들이 감정해야 할 증거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그것은 현장 실무자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현장 실무자가 법과학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보유하는 것과 법과학 전문가가 현장 실무자 수준의 현장 해석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현장 실무자들의 역할 정립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는 수사 환경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현장 재구성’이다. 단편적인 증거들을 통해 단편적인 사실들을 주장하던 과거와는 달리 사건 전체를 시간의 순서대로 재구성하는 것은 수사의 결과를 최대한 진실에 가깝게 하여 적절한 범집행이 이루어지게 하고 형사사법의 오류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도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현장 실무자들은 ① 현장 이해 및 준비 ② 현장 통제 및 관리 ③ 최초 재구



▶▶ 혈흔형태분석 워킹그룹 활동



▶▶ 검시 워킹그룹 활동

성을 통한 가설 수립 및 순서 배열 ④ 현장 증거 발견 및 기록 ⑤ 증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연속성 유지 ⑥ 증거물을 종합하여 가설 증명 및 현상 해석 ⑦ 전문가로서 법정 증언 ⑧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꾸준한 자기 발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다양한 지원이 요구된다. 이미 경찰청이 운영하는 전문가 모임에서는 직무의 표준 중요성을 인식하고 표준화 작업에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새로운 기법과 기술을 찾고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현장 과학수사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관심을 이끌어 내고 그것을 정치적 어젠다가 되도록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교육 발전을 위한 학계와의 파트너십

현대 법과학 실무는 실무 기관이 단독으로는 절대 발전시킬 수 없다. 법과학도 현장에서 사용하는 과학이며 다양한 순수과학 분야에 학문적 기반을 갖고 있는 고도의 응용과학이다. 지금까지 많은 분야의 연구와 교육기능을 수행해온 대학 구조를 활용하면 과학수사 실무는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하면서 충분한 미래 대응역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과학 실무 분야와 학계의 두터운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영국과 미국 등 법과학 교육 프로그램이 수 백 개에 이르는 선진국들을 보면 이러한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았다. 대학에서 대학이 가진 역량을 활용하여 법과학 전문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이것은 다시 현장으로 보급되었고, 현장으로 보급된 지식들은 현장 실무자들에게서 활용되고 다시 대학으로 피드백되었다.

물론 그들의 모델에 문제가 없지는 않다. 대학들의 현장 실무에 대한 이해 부족은 현장과 동떨어진 내용의 법과학 교육 콘텐츠 보급으로 이어졌고 이것은 당사자들의 파트너십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과 현장과학간 교류 확대

현장과학에 대한 대학의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법과학 분야의 연구는 실무를 잘 반영하여 현장의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현장의 과학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학술 교류의 장을 만들고 장단기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과학의 실무적 부분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과학수사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일은 법과학이라는 학문이 가진 융·복합적 특성처럼 각자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친밀한 파트너십이 답이 되어줄 것이다. **ST**

▶▶ 법공학연구회 MOU 학계와의 연계

